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병에 걸렸다 깨끗하게 된 나아만 장군을 아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였으며 큰 용사였지만 나병환자였습니다(5:1).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 잡아 온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3절)." 지금 사마리아로 불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가면 나병을 고침 받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여종의 이와 같은 말은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병에 대한 인식은 곧 저주 받은 병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자신의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아람 왕이 친서와 함께 나아만을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6절)."

하지만 이 글을 받아 든 이스라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생각하기를 이 일이 분명 아람 왕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마9:33)" 하였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도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요9:32)"고 말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에게서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는 친서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만일 그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것을 구실로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라고 전하였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이르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몹시 화를 내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말에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깨끗하게 회복 될 것이라는 결과도 알려 주고 있지만,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을 영접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엘리사의 손을 자신의 부위에 흔들어 병을 고쳐 주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깨끗해 질 것이라는 말은 나아만이 듣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는 요단 강보다 훨씬 나은 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에서 몸을 씻을 거라면 그 강들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되돌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염려대로 만일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 이 일을 자신의 왕에게 보고하면 자칫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종들이 화가 나있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마음을 되돌려서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일곱 번 물에 담갔습니다. 기적과 같이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었습니다. 창세 이 후에 없던 일이 지금 나아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이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 받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 시대의 나아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동네 밖으로 쫓아 내고 그 동네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이야기와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고 순종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과 듣고도 불순종 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인 나아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1절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즉 나아만이 나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아람에 큰 승리를 안긴 영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 있는 나병은 저주의 병이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 왔고 그는 그곳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 요단 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저주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과 멸망하게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의 저주 아래에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결려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나병환자인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모두 나아만 같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무슨 기적이나 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들은 그저 멸망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죄인이며 따라서 멸망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 복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그가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는 순종을 하였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